

나주혁신도시 인구 증가세 지속 '5만 달성' 착착

9월 3만9015명 기록 1년새 4720명 늘어...시 '12만 달성' 위해 캠페인 강화

'인구 5만 자족도시'를 목표로 조성된 빛가람(나주)혁신도시 인구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나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기준 빛가람 혁신도시 인구는 1년 전 3만4295명 대비 4720명(13.76%) 늘어난 3만9015명을 기록했다.

5만 자족도시 목표 달성까지는 1만985명이 부족하지만 증가세 추이를 감안하면 4~5년 내 목표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같은 기간 빛가람혁신도시 인구 증가에 힘입어 나주시 전체 인구는 11만4522명에서 2146명 늘어난 11만6668명을 기록했다. 이 같은 성적표는 나주시가 혁신도시 조성 이후 설정한 '12만 인구' 목표치의 97.2%를 달성한 수치이다.

나주시는 '전체 인구 12만' 목표 조기 달성의 성공 열쇠를 혁신도시에서 찾고 있다. 혁신도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만 전입신고를 하

지 않은 숨은 청년 인구가 오피스텔과 원룸촌 주변에 많은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이를 위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나주에(愛) 주소 갖기'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 캠페인은 나주시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맞춰 '나주사랑의 첫걸음은 전입신고', '나주愛 살아요', '나주愛 주소 갖기' 등

의 문구가 적힌 어깨띠와 현수막, 피켓 등을 활용한 홍보전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나주시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새내기 직원과 타 지역 청년 전입인구 제고를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급',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출산장려금',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역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인 인구 증가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과 캠페인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성군 공공비축미 매입

장성군이 올해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시작했다. 총 매입규모는 5142t이다. 산물벼는 지난 해보다 144톤 증가한 1444t, 건조벼는 68t 늘어난 3698t을 매입한다.

매입품종은 조명1호와 새청무로, 매입대상 품종이 아닌 쌀을 출하한 농가는 추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산물벼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장성통합 RPC(진원면)에서 매입한다. 건조벼 매입은 21일부터 올해 말까지 지정된 51개소의 양곡창고에서 진행한다. 매입가격은 수확기 전국 쌀값 평균을 기준으로 하며, 오는 12월 무렵 확정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강진 '더 샵 252 영랑생가', 문화재청 공모 2년 연속 선정

시문학파기념관 문화재 활용 우수성 입증...1억3000만원 확보

강진군 시문학파기념관의 '더 샵 252 영랑생가' 프로그램이 문화재청의 지속형 문화콘텐츠로 선정돼 1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강진군에 따르면 시문학파기념관이 기획한 '더

샵 252 영랑생가'는 올해 문화재청의 '2021년 고택중갯집' 공모사업 선정에 이어 또 다시 내년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지역 문화재 활용 사업'은 기존의 박제된 문화재 보호정책에서 탈피해 지자체가 문화재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교육·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문학파기념관은 지난 2012년부터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주민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영랑생가 목요음악회 ▲영랑 감성 아카데미 ▲영랑 예술학교 ▲영랑 어린이 시인학교 ▲영랑생가 사랑방 이야기 프로그램 등을 주민주도형으로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영랑생가(국가민속문화재 제252호)의 문화재적 가치 창출은 물론 지역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16년에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문화재청 '명예의 전당'에 등재돼 눈길을 끌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더 샵 252 영랑생가'의 문화콘텐츠가 내년 공모사업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 강진군 문화재 활용정책이 전국 지자체의 롤 모델로 부상했다"면서 "강진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관광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함평 샤인머스켓 1t 홍콩 첫 수출길

함평군의 지역특화작목인 '함평 샤인머스켓'이 홍콩으로 첫 수출길에 올랐다.

함평군은 14일 이상의 함평군수와 김용오 함평꽃무릇수출포도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보 나비골농협에서 샤인머스켓 첫 수출을 기념하는 상차식을 가졌다. <사진>

이날 첫 수출 길에 오르기 위해 선적된 샤인머스켓 물량은 약 500상자(1t)이다.

그동안 군은 국내 샤인머스켓 재배농가 증가로 인한 공급과잉에 대비, 샤인머스켓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등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5월에는 함평꽃무릇수출포도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돼 수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법인은 수출 농가를 대상으로 수출기준에 맞는 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한 농약 안전사용법, 알숙기 요령 교육을 하는 등 수출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해왔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이번 홍콩 수출을 발판으로 삼아 샤인머스켓 수출 확대 등 유통망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역 농산물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나주시, 이춘형·오종순 씨 '시민의 상' 선정

30일 시민의 날 기념식서 시상

나주시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2021년 나주시민의 상' 영예의 수상자 2인을 선정했다.

나주시는 최근 시민의 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열고 총 3명의 후보자 중 사회복지부문 이춘형(62) 씨, 교육문화부문 오종순(69) 씨를 수상자로 각각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나주시민의 상은 ▲지역개발 ▲사회복지 ▲충효도의 ▲산업경제 ▲교육문화 등 총 5개 부문별 1명을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한다.

영예의 수상자로 선정된 사회복지부문 이춘형씨는 세지면 동곡리에 위치한 '행복의 집' 시설장을

역임하며 자녀들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부모처럼 모시면서 어르신 인권 보호와 확립에 기여했다.

이 씨는 노인복지 증진, 시설 종사원의 근로여건 개선 등 사회복지발전과 모범적인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대한 공로로 2010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2020년 전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 교육문화부문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명예회장과 ㈜금성건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오종순씨가 선정됐다.

오 씨는 생계가 어렵고 힘들었던 유년 시절의 경험과 '기업의 이익은 지역사회에 환원해야한다'는 신념을 토대로 나눔과 봉사 실천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현재까지 나주교육진흥재단이



이춘형씨



오종순씨

사를 역임한 오 씨는 지역인재육성기금으로 7차례에 걸쳐 총 6125만원을 기부하며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해왔다.

시상식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시(市) 승격 40주년 나주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된다.

/나주=손영철 기자 ycon@kwangju.co.kr

담양군, 2022년산 친환경 벼 매입품종 '새청무' 선정

담양군이 최근 친환경단지대표 등과 2022년산 친환경 벼 매입품종 선정 협의회를 갖고 '새청무'를 매입품종으로 선정했다.

신동진 벼가 수확량은 많으나(596kg/10a) 도열병 등 병충해에 약하고, 최근 1~2년간 태풍, 집중호우 등 잦은 재해로 피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다수 농가의 권의에 따라 이번 협의회를 통해 친환경 벼 매입품종을 변경하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새청무는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밥맛이 우수한 품종 청무를 모본으로 해 다수성 및 재배 안정성이 뛰어난 새누리를 인공 교배해 개발한 품종이다. 신동진에 비해 수확량은

적으나(560kg/10a) 밥맛이 우수하고, 발아에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군은 친환경 벼 매입품종이 6년 만에 변경됨에 따라 친환경 인증농가 및 신규 참여농가가 변경된 종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농가 안내문 발송, 문자 전송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2022년도 친환경 벼 매입품종이 변경된 만큼 종자 확보와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과 병해충 방제교육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환 기자 nyc@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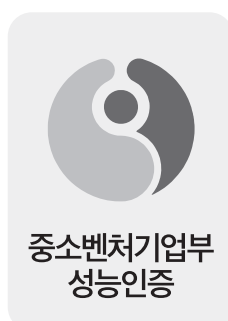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보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